

정부가 17대 대통령의 공약대로 5월부터 전국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무료 관람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31개 국립 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입장이 무료가 될 경우 국민들은 보다 쉽게 이들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질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박물관 무료화정책과 관련하여 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국민의 문화 향수권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야 하는가를 진정으로 고민하였는지 묻고 싶다. 자칫하면 문화 향수권 확대라는 말이 문화 포퓰리즘으로 인식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문화향수권이라는 것도 문화를 누릴만한 소양과 자질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갖추어져 있을 때 그 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무조건 환영만 할 일은 아니라본다. 이에 따라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국립박물관의 무료화와 여타 관련기관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우선 무료화정책과 관련하여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들에서는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 이유로는 국립 박물관, 미술관의 관람료가 폐지되면 관람객들이 국립기관으로 몰려들 것이

고 기폭이나 운영난을 겪고 있는 사립 박물관, 미술관 또한 관람료를 폐지하라는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뜻밖의 상황이 예상된다. 특히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 입장료수입이 기관 운영비의 30%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립박물관 미술관들은 새 정부의 무료 관람제 방침이 자칫 생존까지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입장료 수입의 감소분에대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한다

고 보여진다.

영국 대영박물관이나,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같은 무료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박물관의 경우, 그 관리제도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잘 조화되어서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우리가 과연 그러한 제도와 성숙한 시민의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반문해보고 싶다. 승례문이 불타 원인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문화 향수권만을 주장할 수 없다. 문화유산들이 무관심과 흥대발는

상황에서 자칫 무료화정책이 문화유산들에 대한 경시 풍조를 만연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국립박물관 무료화정책이 수요자 부담의 원칙으로 가야하는 기본논리를 뛰어넘어 무료화 정책이라고 언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더 저급하게 만들 것이며, 문화 확대 현상을 더욱 더 심화시킬 것이다.

현재도 어린이날, 여성주간, 한복차용자, 국가공휴일, 노는 토요일(놀토)등 국립중앙박물관은 다양하게 무료개방의 날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동시에 국민의 식의 성숙과 비례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전면적인 무료개방은 국민의식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졸속행정의 표본이다.

2004 ICOM(국제 박물관협회) 서울대회를 통해서 이제 박물관 미술관의 활동과 역량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국립박물관 무료화정책은 한국에 있는 모든 사립박물관들에게 박물관의 존립을 뒤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무언의 압력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앞으로 열악한 사립박물관의 운영의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하여 정부 당국의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 불자 세상보기

전 보삼  
한국사립박물관협회장

## ‘문화인식’의 무료화 걱정



## 다시 생각하는 환경 가치

“못 생명의 고향이자 불국토의 터전인 한반도를 보존하고 가꾸는 보현행자로 살아가자.”

3월 7일 조계종 특별수행도량 환경 봉양사에는 정부의 정부대운하 건설 계획에 따라 얼마나 훼손될지 모를 강도의 살과 피를 지키자는 불자들의 발원기 가득 찼다. 2월 12일 김포에서 출발한 종교인 도보순례단과 불자들은 이날 법회를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불교계는 대체적으로 정부대운하 계획에 반대를 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정부가 내놓는 경제효과를 몰라서 반대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문제는 환경과 생태 보전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 공청회를 비롯한 관련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환경과 생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과 생태의 가치는 경제논리에 묻히기 쉽다. 경제는 현실을 말하고 환경과 생태는 앞날을 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종교인들이 들길을 걷고 강을 건너며 이 강도의 자연을 느끼고 그 느낌을 국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깊은 뜻도 바로 앞날의 가치를 오늘의 문제로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봉양사에서 열린 참회 정진법회가 우리사회 한 집단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후손들의 행복한 삶까지 내다보는 혜안을 나누자는 간절한 호소임을 알아야 한다.

## ‘혼란의 종단’ 들 참회로 거듭나야

불교계의 큰 종단들이 혼란지경이다. 태고종과 천태종 진각종이 ‘짜 맞추기’라고 한 듯 검찰 조사를 받거나 내부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조계종이 지난해 동국대 신정아 사건과 제주관음사 사태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데 이어 이들 종단도 언론에 오르내리며 불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물론 해당 종단들은 공식적으로 ‘큰 일’이 아닌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종단들의 해명이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 사태를 보면서 하나의 단어를 떠올린다. ‘정직’이다. 태고종과 천태종의 경우 이 단어를 위배한데 따른 곤경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 진각종의 경우도 종도들에 대한 책임감에 스스로 정직하지 못한 태도로 내분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불자들은 부처님에게 ‘정직’을 가장 큰 가르침으로 배운다.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이웃에게 정직한 삶을 사는데서 참 불자의 길은 열린다. 팔만대장경의 법문이다 ‘마음’이라는 단어로 귀결된다지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바로 정직한 마음일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불성이란 바로 거짓에 오염되지 않은 정직한 마음인 것이다. 종도들에게 바른길을 제시하고 이끌어야 할 종단의 지도부가 스스로 정직하지 못한 일로 곤경에 처해있는 현실은 부끄럽다. 하루속히 정직하지 못했던 대한 참회를 하고 진정한 지도자상을 확립하길 바란다.

# 먼저 믿음 보여 주면 ‘만사 O.K.’

### 나부터 변해 보세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요.” 때때로 들는 말이다.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그 마음의 방향을 돌려주려고 한 마디 해준다. “왜 믿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있잖아요. 나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보세요. 그럼 최소 한 사람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학생을 보고 믿음이 뭔가를 알게 되어 또 다른 사람도 점차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지요. 불평만 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변해 보세요.”

인간관계에서 믿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믿음 없는 겉대기 :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한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 믿음이 없다면 인간관계는 겉대기뿐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타인에게 믿음을 주려면 오랜 시간을 지나는 동안 모든 나의 말과 행동들이 믿을 만해야 한다.

배신의 아픔 : 아픈 기억이 있다. 고등학교 시절 매우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연락도 안 하고 지내게 되었다. 솔직히 어떤 일로 내가 그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 ⑤4 세상에 믿을 사람 몇 사람인가요

친구를 배신하고 모든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신뢰가 무너진 순간 그 친구와의 우정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아직도 그 친구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지금이라도 찾아가서 빌고 싶다. “나 정말 미안하다. 괴롭다.” 이렇게 믿음은 인간관계에서 쌓기도 힘들지만, 오랜 기간 쌓아왔다고 해도 한번에 무너뜨릴 위험도 있는 것이다.

세상에 나오오 : 인간관계에서 완전한 신뢰, 과연 그런 것이 세상에 있거나 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어는 사이’와 ‘친구’의 차이 : 나의 경우 믿음은 친구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잣대이다. 서로 간에 믿음이 없는 화우는 그냥 ‘어는 사이’일 뿐이다. ‘어는 사람’과 친구,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로 결정된다.

한 사람도 없는 이유 : ‘믿음’ 하니 내가 이 세

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쯤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아니, 더 나아가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은 과연 몇 명쯤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웬일인가.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진실하게 믿어 줄 사람도 없는 것 같다.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다. 대학생으로서 나의 인간관계라는 범위는 학교에서의 몇 명의 친구와 남자친구, 그리고 가족이 전부이다. 좁고 한정적이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정말 내가 신뢰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 없다는 건 어쩌면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이유 중 하나는 내가 그들에게 한 개 이상씩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 중에는 그 사람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다. 숨기는 것이 있으니까 사람에게 내 마음의 전부를 보여줄 수 없게 되는 것이 아

닐까 싶다. 또 나와 마찬가지로 상대방 나에게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믿을 수 없게 된다.

의심은 나의 적 : 믿음에 대한 가장 강한 적은 바로 의심하는 마음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남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지 않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관계는 끝장이다. 회복하기 어렵다.

진실의 힘 : ‘진실은 언제나 통한다’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을 정말 좋아한다. 항상 진실하게만 사람을 대한다면 결국은 통해서 신뢰 받게 된다.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내세울 것도 별로 없다. 오직 진실한 마음만이 인간관계에서 나의 백이다. 나는 언제나 사람들이 믿어주고 나도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상대에게 맞추세요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관계에서 믿음을 얻는 진리는 한 가지이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바랄 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대해 주는 것이다. ‘내가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시오!’ 그럼 만사 O.K.이다.

### 공생의 도리

우리는 간혹 공생으로 더불어 사는 도리를 잊고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을 망각하기도 한다. “마음공부는 서로 아끼며 서로 사랑하며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새겨야겠다.

황수경(경국대 선학과 강사)

# 탈 종 공 고

- 1. 사찰명:용정사 ◊법명:근 패(김성식)  
◊주소:경남 창원시 마산신 기술리 66번지
- 2. 사찰명:도덕암 ◊법명:영 현(김윤근)  
◊주소:경남 창원시 동읍 봉산리 413번지
- 3. 사찰명:금산사 ◊법명:영 패(공성도)  
◊주소: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396번지
- 4. 사찰명:용주사 ◊법명:법 우(김용철)  
◊주소:경남 창원시 동읍 용강리 289번지
- 5. 사찰명:팔봉암 ◊법명:송 해(김인근)  
◊주소:경남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816번지
- 6. 사찰명:원각사 ◊법명:향 신(윤형찬)  
◊주소:경남 창원시 동읍 용강리 280-1번지
- 7. 사찰명:악수암 ◊법명:녹 원(김정록)  
◊주소: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550-1번지
- 8. 사찰명:장안사 ◊법명:묵 임(이건우)  
◊주소: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1141-1번지
- 9. 사찰명:안정사 ◊법명:선 패(박영진)  
◊주소:경남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 512번지

- 10. 사찰명:불국사 ◊법명:서 임(임영복)  
◊주소:경남 창원시 대방동 1036번지
- 11. 사찰명:혜원사 ◊법명:능 산(조재익)  
◊주소:경남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 379-7번지
- 12. 사찰명:법림정사 ◊법명:일 봉(조인규)  
◊주소:경남 함안군 규북면 하림리 621-1번지
- 13. 사찰명:용천사 ◊법명:해 임(양중기)  
◊주소:경남 창원시 동읍 화양리 1500번지
- 14. 사찰명:성불암 ◊법명:덕 산(정진용)  
◊주소:경남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 897번지
- 15. 사찰명:금수암 ◊법명:진 공(황길호)  
◊주소:경남 창원시 동읍 봉산리 176-5번지
- 16. 사찰명:호국사 ◊법명:송 열(김태근)  
◊주소:경남 김해시 이동 544-1번지
- 17. 사찰명:당선암 ◊법명:정 공(최주석)  
◊주소:경남 창원시 대산면 북부리 235번지
- 18. 사찰명:만성사 ◊법명:도 성(이태식)  
◊주소:경남 창원시 동읍 봉곡리 55-1번지

- 19. 사찰명:백련사 ◊법명:원 명(김석현)  
◊주소:경남 창원시 동읍 노현리 60-1번지
- 20. 사찰명:신성암 ◊법명:성 문(이숙희)  
◊주소:경남 창원시 동읍 신방리 753번지
- 21. 사찰명:극락암 ◊법명:영 선(조영길)  
◊주소:경남 창원시 대산면 북부리 281번지
- 22. 사찰명:용화사 ◊법명:만 승(배계한)  
◊주소:경남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978번지
- 23. 사찰명:일성암 ◊법명:덕 성(홍정부)  
◊주소:경남 거제시 능포동 419번지
- 24. 사찰명:불령사 ◊법명:영 임(김외태)  
◊주소:경남 창원시 창녕군 영산면 구개리 162번지
- 25. 사찰명:대원사 ◊법명:해 월(박동만)  
◊주소: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044번지
- 26. 사찰명:연봉사 ◊법명:봉 패(김경천)  
◊주소:경남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474번지
- 27. 사찰명:항림사 ◊법명:법 항(김순자)  
◊주소: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33-27번지

- 28. 사찰명:금음사 ◊법명:호 산(박기홍)  
◊주소: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동리 841-1번지
- 29. 사찰명:대운암 ◊법명:김희선  
◊주소:경남 김해시 한림면 어은동 대곡산
- 30. 사찰명:장수암 ◊법명:덕 임(김갑출)  
◊주소:경남 마산시 구산면 심리 156-2번지
- 31. 사찰명:용화사 ◊법명:덕 일(윤경훈)  
◊주소: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459-1번지
- 32. 사찰명:관불사 ◊법명:덕 일(윤경훈)  
◊주소: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446번지
- 33. 사찰명:백운사 ◊법명:정 패(이을용)  
◊주소:경남 창원시 북면 신촌리 392번지
- 34. 사찰명:미륵사 ◊법명:송 광(박광우)  
◊주소: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744-7번지
- 35. 사찰명:덕산사 ◊법명:반야(성(황이상)  
◊주소:경남 밀양시 조동면 성만리 산 74번지
- 36. 사찰명:성운암 ◊법명:덕 인(곽병환)  
◊주소:경남 김해시 한림면 명리 인현 836번지

- 37. 사찰명:용정사 ◊법명:동 준(이학근)  
◊주소: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정리 산 13번지
- 38. 사찰명:미타사 ◊법명:현 진(안위섭)  
◊주소: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 2동 78번지
- 39. 사찰명:백련암 ◊법명:경 불(박심영)  
◊주소:경남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682-6번지
- 40. 사찰명:용화사 ◊법명:무 호(조홍삼)  
◊주소: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181번지
- 41. 사찰명:미륵암 ◊법명:동 패(채호식)  
◊주소: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150번지
- 42. 사찰명:만수사 ◊법명:정정자  
◊주소:경남 김해시 통상동 407번지
- 43. 사찰명:정진암 ◊법명:광복제  
◊주소:경남 창원시 북면 월백리 1110-5
- 44. 도 공
- 45. 연 화
- 46. 종 파

용정사(근파) 도덕암(명현) 금산사(영파) 용주사(법우) 팔봉암(법산) 원각사(향산) 악수암(해산) 장안사(묵안) 안정사(선파) 불국사(서암) 혜원사(능산) 법림정사(일봉) 용천사(도일) 성불암(덕산) 금수암(진공) 호국사(송열) 당선암(정공) 만성사(도성) 항림사(원명) 신성암(성문) 극락암(연산) 용화사(만승) 일성암(덕성) 불령사(영암) 대원사(해월) 연봉사(봉파) 항림사(법향) 금음사(호산) 대운암(김희선) 장수암(덕임) 용화사(득일) 관불사(득일) 백운사(정파) 미륵사(광우) 덕산사(반야성) 성운암(운산) 합안 용정사(동준) 미타사(현진) 백련암(경봉) 정진암(선재) 김해 용화사(무호) 미륵암(동파) 만수사(정정자) 정진암(광복제) 43개사찰

위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종 제 11교구(김창) 소속 43개 사찰과 3인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3일

##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혜륜 법하

이 탈종에 관한 문익는 용정사 근파스님께 연락바랍니다. [용정사 TEL 055-291-4218]